광주FC "최고 예우로 이정효 감독 잡겠다"

아시아무대 돌풍·K리그 흥행 이끈 '정효볼'…재계약 총력에도 거취는 여전히 '안갯속'

광주FC의 '공개 구혼'에 이정효 감독이 응답할까?

광주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구단의 재정적 한계에 속에서도 최고의 예우를 할 것"이라며 이정효 감독과의 재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 4년 팀을 이끌면서 몸값이 치솟은 이정효 감독에 대한 특급 대우를 약속한 광주는 팀 경쟁력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 의지도 표명했다.

구단은 "국내를 넘어 아시아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팀으로 도약할 수 있게 자본력 있는 국내외 후원사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지역 축구 뿌리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광주FC의 성장이 지역 축구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축구협회와 대학과의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이정효 감독이 자신의 축구 철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바닥도 다지겠다는 게 광주의 의지다. 광주는 올 시즌 현장 중심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서 선수운영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광주가 뜨거운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이정효 감독의 존재감과 영입 경쟁 때문이다.

광주FC의 역사는 이정효 감독 전·후로 나눌 수 있다.

이정효 감독은 사령탑 첫해였던 2022년 K리그2 '우승 감독'이 됐다. 놀라운 질주로 K리그2 역대 최다 승점(86점)으로 우승을 확정한 이정효 감독은 K리그1에서도 실력 발휘를 했다.

2023시즌 광주는 정규시즌 3위 자리에 오르면서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을 작성했다. 축구전용구장 매진 사례가 펼쳐지기도 하는 등 이정효 감독은 '야구도시' 광주에 '축구 바람'을 일으켰다. 그리고 광주는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거머쥐면서 아시아 무대에도 진출했다.

결과는 K리그 시도민 구단 첫 8강 진출이었다. 유일한 K리그팀 8강 생존자이기도 했던 광주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알 힐랄을 상대로 승부를 펼쳤다.

지난해 광주의 코리아컵 첫 4강 진출을 이뤘던 이정효 감독은 올 시즌에는 결승전까지 팀을 끌어올렸다.

결과는 'K리그1 우승팀' 전북현대와의 연장승부 끝에 아쉬운 1-2패배였지만 아챔, 코리아컵에서 광주의 힘을 보여줬다. 리그에서도 파이널B 그룹의 가장 높은 자리인 7위를 차지하면서 3년 연속 K리그1 잔류도 이뤘다.

주축 선수들의 이적과 부상이 이어진 가운데 만든 성과라는 점에서 이정효 감독의 가치가 더 빛난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극적이었다.

이정효 감독은 '팬들을 위한 경기'를 강조하면서 일단 공격을 주문한다. 선수들은 이정효 감독의 전술에 맞춰, 팬들에게 응답하기 위해 경기 내내 쉴 새 없이 뛰면서 골대를 두드렸다.

이정효 감독의 축구 열정이 만들어낸 놀라운 역사들이다. 이정효 감독은 밥 먹는 시간도 아끼면서, 날을 새어가면서 전술 공부를 하고, 이를 선수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직접 영상 편집을 하기도 한다.

이런 열정 덕분에 이정효 감독의 축구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광주행을 타진하는 선수들이 줄을 섰다. '정효볼'을 통해 기량이 만개해 제2의 축구 인생을 여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정효 감독은 광주의 최고 슈퍼스타이기도 하다. 거침없는 말과 행동으로 화제를 몰고 다니면서 이정효 감독은 K리그의 히트 상품이 됐다.

최고의 시즌을 보낸 광주는 최악의 변수 속 만만치 않은 2026시즌을 앞두고 있다.

구단의 행정 실수로 발생한 FIFA 연대기여금 미납 사태 징계로, 광주는 내년 상반기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다. '주장' 이강현과 올 시즌 처음 '태극마크'를 단 변준수의 김천상무 입대 등 선수 유출도 이어질 전망이다.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판을 짜야 하는 광주로서는 '사령탑 수성'이 내년 시즌 준비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됐다.

광주의 이런 적극적인 공세에도 이정효 감독의 거취는 불투명하다. 광주에서 많은 것을 이룬 이정효 감독은 늘 성장과 발전을 꿈꾸는 사람이다. 구단의 공언에도 시민구단의 한계도 있는 만큼 이정효 감독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아시아챔피언스리그 8강, 코리아컵 준우승을 이끈 이정효 감독의 재계약을 위해 나섰다. 지난 6일 전북현대와의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선수들을 지켜보는 이정효 감독. <광주FC 제공>

8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수원FC와 부천FC의 경기. 전반 부천FC 바사니가 선제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천FC, 18년 기다린 '승격 드라마'

수원FC 꺾고 창단 첫 K리그1 입성…이영민 감독 '저비용 고효율' 빛나

프로축구 부천FC가 수원FC를 K리그2(2부)로 끌어내리고 창단 이후 처음으로 K리그1(1부) 승격을 이뤘다.

부천은 지난 8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 2025 2차전 원정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린 바사니를 앞세워 수원FC를 3-2로 꺾었다.

이로써 5일 홈 경기로 열린 1차전에서도 1-0 승리를 거뒀던 부천은 1, 2차전 합산 점수에서 4-2로 수원FC를 제쳐 다음 시즌 K리그1 그라운드를 누비게 됐다.

프로 무대에 처음 진입해 K리그2 첫 시즌을 치른 지 12년, 구단 창단을 기준으로는 18년 만의 쾌거다.

반면, 수원FC는 올 시즌 K리그1에서 10위에 머물러 승강 PO까지 치렀으나 결국 강등을 피하지 못했다. 수원FC가 K리그2에서 활동하는 것은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부천은 올 시즌 K리그2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3위를 차지한 뒤 K리그2 PO를 거쳐 처음 승강 PO에 올랐다.

부천은 1990년~2000년대 초반 프로축구의 강호였던 부천 SK(현 제주 SK)가 2006년 제주로 연고지를 옮기자 지역 축구 팬들이 시민구단 창단을 추진하며 탄생한 구단이다.

2007년 12월 창단해 K3리그에서 뛰던 부천은 2013년 승강제 도입을 계기로 프로 무대에 진출해 K리그2에서 시작했다.

첫 시즌 K리그 챌린지(당시 K리그2 명칭) 7위, 이듬해 10위에 그친 부천은 이후 중하위권을 맴돌며 간간이 승격 기회를 맞이했으나 고비를 넘기 쉽지 않았다.

K리그2 원년 멤버 중 사라진 구단을 빼면 광주FC와 수원FC, 안양은 모두 1부 무대를 맛봤고, 부천만 올해까지 2부에 남아 있었다가 마지막으로 승격에 성공했다.

부천은 지난해 기준 선수 연봉 지출액이 K리그2 13개 팀 중 10위(34억4932만원)에 그쳤을 정도로 재정이 넉넉지 않은 팀이다.

이번 시즌 부천이 지원받는 예산은 5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시도민구단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이다.

2021년부터 팀을 이끌어 부천 구단 '최장수 사령탑'이 된 이영민 감독의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것이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었던 요인으로 꼽힌다.

경기력에선 스리백 전술을 바탕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다진 이 감독은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행동하는 리더십'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이 감독은 한 시즌 팀 농사를 좌우하는 외국인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젊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며 팀의 주축으로 성장시켜 부천의 첫 '승격 사령탑'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연합뉴스

2년만에 돌아온 'V리그 올스타전'

11~18일 온라인 팬 투표…내년 1월 25일 강원서 개최

올해 프로배구 '진에어 2025-2026 V리그 올스타전'이 내년 1월 25일 강원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1일 오후 4시부터 18일 오후 4시까지 총 8일간 온라인 팬 투표를 통해 올스타전에 나설 선수를 선발한다.

매년 1월 개최되는 V리그 올스타전은 겨울 코트를 달군 스타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프로배구 축제'다. 팬 투표와 기록 순위를 바탕으로 선발된 선수들은 K-스타, V-스타 두 팀으로 나눠 대결한다.

지난 시즌 올스타전은 제주 항공 참사를 기리는 차원에서 취소되면서 2년 만에 행사가 진행된다.

선수 포지션별 최종 선발된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팀이 배정된다.

K-스타는 아포짓 스파이커 2위, 아웃사이드 히터 1·4위, 세터 2위, 미들블로커 1·4위, 리베로 1위를 차지한 선수가 이름을 올린다.

V-스타는 아포짓 스파이커 1위, 아웃사이드 히터 2·3위, 세터 1위, 미들블로커 2·3위, 리베로 2위로 구성된다.

투표 대상 선수는 2라운드 종료 기준 성적으로 가려졌다.

팀 경기 수의 절반 이상을 출전한 선수 가운데 포지션별 기록 순위(정규리그 베스트7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 인원의 3배수를 선발했다.

최종 명단은 팬 투표 70%와 선수단(감독·수석코치·주장) 투표 15%, 미디어(기자·방송중계사) 투표 15%를 합산해 최종 확정한다. 선수단은 본인 소속 구단 선수에는 투표할 수 없다.

이 과정을 통해 남녀 각각 14명, 총 28명의 선수가 '올스타'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여기에 전문위원회 추천 12명을 더해 총 40명의 선수가 올스타전 코트를 누비게 된다.

지휘봉은 2라운드 종료 기준 정규리그 성적에 따라 주어졌다.

K-스타는 남자부 1위인 대한항공의 헤난 달조토 감독과 여자부 2위팀 현대건설의 강성형 감독이 이끌고, V-스타는 남자부 2위 KB손해보험 레오나르도 카르발류 감독과 여자부 1위팀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이 맡는다.

한편 온라인 팬 투표는 KOVO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홈페이지 회원당 하루 1회, 동일 구단 선수는 최대 3명까지 투표할 수 있고 투표 직후 현황 확인도 가능하다.

다만, 투표 마감 72시간 전부터 득표수는 비공개로 전환된다. /박연수 기자 training@

2026 월드컵 22분 뛰고 3분 쉰다

FIFA, 전·후반 수분 공급 휴식

2026 북중미 월드컵 모든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전·후반 3분씩의 '수분 공급 휴식'(Hydration breaks)이 주어진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9일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 공동 개최되는 2026년 월드컵의 모든 경기에서 수분 공급을 위한 휴식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FIFA에 따르면 수분 공급 휴식은 날씨나 기온, 경기 장소, 지붕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경기에서 전·후반 3분씩 갖는다.

주심은 전·후반 각각 22분에 경기를 중단시키고 선수들에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3분씩의 시간을 준다. 만약 전·후반 20분이나 21분쯤에 부상자가 발생한다면 주심의 재량으로 수분 공급 휴식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FIFA는 선수들의 복지를 최우선시하며 선수들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보장해 주기 위한 시도라고 수분 공급 휴식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열린 FIFA 클럽 월드컵을 포함한 이전 대회에서 사용했던 제도를 간소화하고 단순화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올해 6~7월 미국에서 열린 FIFA 클럽 월드컵에서는 특정 온도(섭씨 32도)를 넘는 기온이 30분 이상 지속하면 '쿨링 브레이크'(Cooling breaks)라고도 불려 온 수분 공급 휴식 시간을 줬다.

영국 BBC에 따르면 내년 월드컵 역시 6~7월에 개최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고온이나 산불은 물론 심지어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몇몇 축구 관련 단체들이 낸 보고서에는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 16곳 중 10곳이 '극심한 열 스트레스' 조건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IFA는 대회 사상 처음으로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내년 월드컵에서 세 차례의 개회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6월 12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대회 공식 개막 경기(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뿐만 아니라 6월 13일 캐나다 토론토(캐나다-유럽 플레이오프 A그룹 승자), 미국 로스앤젤레스(미국-파라과이)에서 치러질 캐나다, 미국의 첫 경기에 앞서 개회식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